

광주·전남 미래는 밝다

지역금융 대동맥... 나눔기업문화 확산

광주은행장 송기진(61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통한 나눔의 기업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광주은행 수장. 올해 지역 기업, 상공인, 서민 등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역금융의 대동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내 호남인맥 선두주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문우일(52)

광주교검장 직무대리를 거쳐 최근 법무부로 자리를 옮긴 검찰 내 호남인맥의 선두 주자. 다양한 분야에 뛰어난 전문 식견을 갖고 있으며, 대인관계가 무난한 것은 물론 재치 있는 말솜씨로 분위기를 주도한다.

‘국민 첫사랑’ 등극... 상반기 최다 CF

걸그룹 ‘미쓰에이’ 수지(18)

2010년 그룹 ‘미쓰에이’로 데뷔. 지난해 영화 ‘건축학개론’을 통해 ‘국민 첫사랑’ 등극. 20개가 넘는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올 상반기 최다 CF 출연 기록, 드라마 ‘구가의 서’를 통해 또 한 번 ‘수지 바람’이 기대된다.

지역미술인 해외진출 적극 지원

광주시립미술관 관장 황영성(74)

새 임기 시작 후 지역 작가들의 독일 뮌헨 진출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등 미술인들의 해외무대 진출을 지원하고 시민들과 호흡하는 미술행정을 펼치고 있다. 서울 현대화랑과 지속적으로 개인전을 여는 등 활발하게 활동.

목사·화가·음악가... 전방위 예술가

메이홀 관장 임의진(46)

목사이자 화가, 음악가로 활동하는 전방위 예술가다. ‘웃기고 영롱하고 신기한 작은 공간’을 표방한 문화 아트지 ‘메이홀’ 대표로 음악회, 전시회, 강연회 등 재미있고 의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LED 소재 실험적 작업세계 개척

미디어 아티스트 정운혁(48)

독일 유학파로 조각작품에 그림을 그리는 ‘입체적 회화’를 선보여 주목받았으며 LED 등 빛을 소재로 실험적인 설치·미디어 작업 세계를 개척하고 있다. 해외 아트페어와 전시회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주택공급실적 3위... 지역경제 버팀목

중흥건설 사장 정문주(46)

광주에 기반을 둔 지역 대표 주택 건설사 사장. 수도권과 세종시 등 공격 경영을 통해 지난해 전국에 7600여 가구를 공급,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 지난해 아파트 공급실적 3위.

기획분석력 탁월... 검찰내 차기리더

서울고검 형사부장 조은석(48)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검찰의 ‘꽃’으로 승진한 신입 검사장. 철저력과 청렴이 몸에 밴 검찰 내 호남인맥의 차기 리더로,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낼 정도로 조직 내에서 신망도 두둑다. 기획·분석력이 탁월하다.

생활 속 인문학 구현 다양한 강좌 추진

‘무등지상’ 대표 장복동(54)

전남대 비정규교수 학술모임 무등지상을 이끌고 있는 철학자. 전남대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 졸업 후 전남대, 조선대 강사로 활동. 생활속 인문학 구현 모토로 충장서림과 연계 ‘찾아가는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 추진.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 콘텐츠화

지역문화교류재단 이사장 백수인(59)

조선대 국어교육과 교수로 3월 취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아시아 문화전당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발언과 함께 3개년 예정인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2단계 사업 등을 진행한다.

무명 선수팀 구성, 대학연맹전 정상에

광주대 축구부 감독 정평열(51)

고교시절 대부분 전국 대회조차 출전하지 못했던 무명선수들로 구성된 팀을 통해 대학연맹전 정상에 올랐다. 선수들의 단점을 장점으로 끌어올리는 ‘소통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많은 활약이 기대된다.

의사출신 CEO... 바이오신약 개발

프라임제약 CEO 김대익(47)

의사 출신 제약회사 CEO로 바이오신약 개발 원천기술 획득. 2000년 매출 10억원 규모 제약회사 인수해 한국프라임제약 설립. 바이오산업에서 성과를 나타내며 12년 만에 매출 643억원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법조·정계 신망 두터운 여성변호사

민변 광주·전남지부장 임선숙(47)

지역 여성 변호사와 30·40대 젊은 변호사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동시에 정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여성변호사. 당찬 변론은 물론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내놓아 여장부로 통한다.

‘작가회의’ 지역문학 활성화 견인

광주·전남작가회장 조진태(54)

5·18재단 사무처장을 거쳐 작가회의를 이끌고 있는 시인. 5월문학제 등 다양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역점. ‘빛고을문학관’ 콘텐츠 등 지역문학 활성화하는데 다양한 목소리 낼 듯.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이끌어

풍암계림교회 목사 윤세관(62)

광주지역 1500여개 교회, 30개 기독교 교파, 40만 성도를 대표하는 단체인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평화통일을 위한 각종 세미나, 불우이웃돕기, 교단 친목 도모에 힘쓰고 있다.

‘양학선 3’ 개발... 한국체조 간판스타

런던올림픽 체조 금메달 양학선(21)

지난해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체조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딴 한국 체조의 간판스타. 지난 3월 에스카라 트리플(엠펙 손 짚고 3바퀴 비틀기)에 반바퀴를 더한 고난도의 ‘양학선 3’ 신기술을 개발했다.

한상대회 이끄는 재외동포 기업인

영스그룹 대표 박종범(56)

오스트리아 및 유럽 한인연합회장으로 최근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로부터 한국과의 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금성 훈장(금장)을 받았으며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3년 연구 끝 전남 슈퍼김 1호 개발

도해양수산과학원 김동수 박사(57)

국내 최초의 김 신품종인 ‘전남 슈퍼 김 1호’ 개발을 주도한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소장. 3년여 연구 끝에 갯벌과 수온변화에 강하고 생산량이 1.4배나 많은 슈퍼 김을 개발해 종자분야의 새 역사를 썼다.

세계비엔날레협 초대회장 선출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이용우(62)

지난 3월 세계비엔날레협회(International Biennial Association)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세계 150여 개 비엔날레 간 유대와 관련 사업 연구 등 교류·협력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공식 성경·전례서 보급 앞장

신부 이정주(46)

광주대교구 소속으로 광주대교구 70주년준비위원회 사무국장, 광주가톨릭대 대학원장 등을 거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및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으로 공식 성경과 전례서 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다.

최연소 피겨 국가대표 ‘포스트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박소연(16)

나주초교 6년때 최연소 피겨 국가대표로 발탁됐으며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포스트 김연아’로 손꼽힌다. 지난해 9월 터키에서 열린 ISU 주니어 그랑프리 4차 대회 여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땀다.

첨단기술기업 1호 지정 이끌어

(주)PPI 대표 김진봉(58)

교수 출신 CEO. 광주 대표 광통신 업체로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1호 지정. 광관광회로기술 100% 국산화, FTTH 핵심부품 광워분배기·광과장분배기 개발. 지난해 수출 실적 950만달러를 달성했다.

유기농 발아현미 개발 ‘농부 박사’

미살란 대표 이동현(43)

곡식에서 ‘미살란’이라는 유기농 발아현미 가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농부 박사’. 국내 최초로 유기농 발아현미를 개발해 발아현미, 발아오색미, 발아현미떡 등을 한국의 대표적인 명품 식품으로 키웠다.

전국 3만여 미술인 진두지휘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조강훈(52)

순천 출신으로 올해 초 제23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에 선출됐다. 4년 동안 서울과 전국 15개 시도지회에 3만여 명의 미술인이 회원으로 등록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술단체 한국미협을 이끈다.

야예술품장 콘텐츠 주도... 문화전문가

문화개발원 공연사업팀장 전애실(44)

공연 예술계에서 20여년 동안 활동해온 문화·예술 전문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연공간인 아시아예술극장 콘텐츠 개발 등을 주도하고 있다. 경기도 문화전당 예술단 운영팀장을 역임했다.

폭넓은 경험... 올시즌 다크호스

넥센 히어로즈 감독 염경엽(45)

광주일보 출신으로 2012년 10월 넥센의 3대 감독으로 취임. 1991년 태평양에 입단한 뒤 2000년 현대에서 은퇴했으며 LG 스카우트와 운영팀장과 넥센의 작전·주루 코치 등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광주전남대표 여성경제인으로 우뚝

한국에텍 대표 조애옥(53)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회장.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 회사 CEO로 여성아이디어현상공모대회 은상 수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맡는 등 여성 경제인으로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 활동.

‘7번방 선물’ 제작... 최고 흥행메이커

화인웍스 대표이사 김민기(51)

광주출신 영화제작자로서 세계 최초로 개가 주인공인 영화 ‘마음의 히트’에 이어, ‘7번방의 선물’이 관객 1280만명을 돌파하면서 최고의 흥행 메이커로 떠올랐다.

지역극단 역량 강화... 꿈 향해 달린다

광주연극협회장 정순기(46)

올해 연극협회 신입회장으로 취임. 지역 극단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극단 ‘타’의 대표이자 연극배우로 100여편의 작품에 출연했으며 전국 연극제 연기상을 수상했다.

‘싸인’ ‘그 겨울’ 등 드라마 히트 제조기

제작사 골든샘 대표 김용훈(33)

광주출신 드라마 제작자. 드라마 ‘못된 사랑’, ‘싸인’, 최근 종영한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등 히트작을 제작했다. 지난 2011년 ‘싸인’으로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방송영상그랑프리 대ทอง표창 수상.

야구계 원로... 14년만의 복귀

광주시 야구협회장 나훈(66)

지난 1998년 광주시 야구협회 3대 회장을 지냈으며 14년 만에 야구계에 복귀했다. 광주일보 투수 출신으로 송정중 감독을 지낸 야구계의 원로이자 KIA 선동열 감독의 야구 스승이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창업 31주년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1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